

내 자녀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10원칙

존중과 배려의 원칙

자녀에게 사이버공간에서 타인도 자신과 같이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자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부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사소통의 원칙

평소에 대화를 통해 학생이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
온라인 게시물 등록시 여러번 생각해본 후 남기도록 해주세요.

이하부정관의 원칙

타인으로부터 오해나 불신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이하부정관(李下不正冠) : 오랫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말

지피지기의 원칙

사이버폭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교육해주세요.
※ 지피지기(知彼知己) :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

대화의 원칙

평소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해주세요.

도움요청의 원칙

사이버폭력을 당할 경우,
언제든 부모가 든든한 지지자가 됨을 알려주세요.

초기대응의 원칙

자녀에게 사이버폭력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보복하지 말고 무시하고 차단하도록 교육해주세요.

증거보존의 원칙

자녀를 비난하거나 욕설 등의 메시지를 확인한 경우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주세요. 이때, 자녀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대응의 원칙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관련기관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사이트 관리자에게 사이버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내 자녀의 사이버폭력 고민!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전화 신고/상담 서비스



온라인 신고/상담서비스 에듀넷(도란도란)

www.edunet.net
www.dorandoran.go.kr



학교별 학교폭력 익명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익명, 비밀)

에듀넷

www.edunet.net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제공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 1388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비밀상담, 실시간 채팅 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82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 신고/상담서비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 117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상담/신고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SOS 지원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sos ☎ 1588-9128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스마트심 센터(인터넷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 1599-0075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 제공(게시판, 메신저 등)

스마트 정보문화 포털

http://www.digitalculture.or.kr/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문자 상담/신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0117

경찰청 안전Dream m.safe182.go.kr

모바일앱

117Chat(학교폭력 신고센터, 채팅상담 등 제공)

스마트 안심드림(사이버폭력 감지시스템)

건강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이버문화 건강하게 지켜요

-사이버 폭력 예방·대응 학부모가이드-



사이버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 ▶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
- ▶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 ▶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판매하며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은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왕따)

인터넷 대화방,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 패के(집단 공격): 왕따 친구를 카톡으로 초대해 단체로 욕설과 조롱함
- ▶ 카톡감옥 : 카톡방을 나가더라도 계속 카톡방에 초대해 카톡방에 기동 후 조롱과 욕설을 함
- ▶ 와이파이 셔플(무선데이터 갈취), 핫트 셔플(아이템 갈취) 등을 당하기도 함

사이버폭력 왜 무서운 것일까요?

가해행동의 집단성

사이버폭력은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게 폭력행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보지 않고 또 자신을 숨긴 채 사이버폭력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파성과 복제성

인터넷, SNS의 빠른 전파와 무한 복제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문, 허위사실 등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무경계성

시공간적 제한 없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기록의 영속성

인터넷, SNS 등 사이버상에 노출된 사이버폭력의 내용은 삭제가 어려워 평생 기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은밀한 사이버폭력

비대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사이버폭력 징후 파악하기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스마트폰 등)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또는 문자메시지나 메시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괴로워 보인다.
- SNS 상태 글귀나 사진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있다.
- 자녀가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 SNS 등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된다.



사이버폭력에 상처받는 우리 아이! 이렇게 지켜주세요!

피해학생이라면

해야 할 일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며 아이를 지지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보호해주세요

아이에게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마세요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힘든 내색을 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욱 움츠러듭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가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해야 할 일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부인하지 마세요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정당화 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커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